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5호 【루체 제23197호】주체99(2010)년 9월 2일(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조종친선의 력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사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의 크나큰 환희와 맑은 민족적자부심이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은 세계적 관심의 중심이 되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와 당창건 65년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은 5일만에 걸치는 정력적인 중국방문으로 조종친선 관계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중심이 되는 경의를 드리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해에 두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신것은 전례없는 일로서 조종친선이 얼마나 높은 단계에 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들은 조종친선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형제중국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고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온갖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존경하는 호금도동지와 뜨겁게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었다. 동지께서는 친선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상봉과 회담에서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자기 나라의 형편을 각기 발표하시고 조종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대하여서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동북아시아경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완전한 견해일치를 보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4개월만에 호금도 총서기 되시고 또다시 상봉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멀리 장춘에까지 내려와 친절히 맞이하고 하사들을 배려해주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종친선은 력사의 통과와 시련을 이겨낸 친선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질수 없다고 강조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중국의 로새대 혁명가들과 함께 풍란로숙하시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중국 동북지역에 틀어지는 순간부터 장백산 줄기줄기와 압록강 굽이굽이에 지금도 력력히 आरो세겨져있는 혁명선렬들의 피어린 자욱들을 되새겨보면서 조종친선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청년시절에 이곳 동북땅에서 중국의 공기와 물을 마시며 항일혈전을 벌리셨으며 그 과정에 중국의 로새대 혁명가들과 함께 땀과 눈물로 맺어온 조종친선의 빛나는 력사와 훌륭한 전통을 마련하시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김정일동지의 이번 방문이 쌍방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며 조종친선협조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조종친선의 력사적배배가 마련된 김일성주석 동지께서 대한 김정일동지의 방문은 두 나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하신것은 두 나라로새대 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조종친선을 얼마나 중시하시는데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호금도동지는 조종친선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기술이사는 김정일동지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회담에서는 앞으로도 조종 두 나라 혁명선배들의 뜻을 이어 전통적인 조종친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활력있게 강화할것을 약속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조종친선에는 두 나라 로새대 혁명가들의 필생의 심혈이 깃들여있고 사회주의의 공동의 리상이 반영되어있으며 두 나라 인민의 절절한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들은 김정일총서기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은 조종친선의 강화발전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조종친선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중국인민은 자기 일정한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 중국방문을 통하여 조종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서 맺어진 친선의 정과 동지적 우의를 한층 두터이하고 조종친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교지들인 김일성과 장춘시, 랴오닝을 돌아보시였으며 중국의 동북지역을 오가시며 근엄하고 지혜로운 중국인민의 사상감각과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을 깊이있게 로해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인민들이 중국공산당의 령도에 이룩한 훌륭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과 흑룡강성은

발전시켜나가려는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표명되었다. 회담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종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력사적인 상봉이후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사회주의로에 맞게 더욱 증진발전되었다고 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호상지지와 굳은 연대성이 표시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당의 집권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과학적 발전관을 실현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력사적투쟁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기를 믿는다고 지적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조종 친선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위한 적극적 조치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 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회담이후 조선로동당대표자까지 성과적으로 진행되며 조선인민이 당창건 65년을 계기로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력사적투쟁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 중국방문을 통하여 조종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서 맺어진 친선의 정과 동지적 우의를 한층 두터이하고 조종친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교지들인 김일성과 장춘시, 랴오닝을 돌아보시였으며 중국의 동북지역을 오가시며 근엄하고 지혜로운 중국인민의 사상감각과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을 깊이있게 로해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인민들이 중국공산당의 령도에 이룩한 훌륭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과 흑룡강성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은 호금도동지와 중국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환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 중국방문을 통하여 자주의 기치밑에 단결과 협조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친선관계발전의 산모범을 보여주셨으며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종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두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고무를 안겨주셨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종 두 나라 혁명선배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전통적인 조종친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공헌의 재부여에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패의 친선이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서로 긴밀히 지지협조하여왔으며 이것은 두 나라사회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커다란 전진과 승리를 안아오는 귀중한 밑천이 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중국에서는 나라의 번영을 담보해주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고 있다.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은 등승령리론과 《세계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의 기치밑에 중국특색의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제1차 5개년계획기간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중국인민의 생활이 날로 향상되고있다. 국제적인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는 상해세계박람회도 보여주는데와 같이 중국의 국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노래 소리가 창공높이 울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중국의 면모가 날로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는것을 자기 일처럼 기쁘고있으며 중국인민의 사회주의위업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있다.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이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전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리라고 믿고있다. 우리 인민은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몰아치는 속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최첨단과학의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은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신군조선의 전도는 밝고 창창하다.

세기를 이어오는 조종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려는것은 두 나라 당과 인민의 리익에 걸적으로 부합된다. 중국의 당과 정부와 인민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고맙게 여기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는 력사의 통과를 이겨낸 조종친선의 유대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종친선은 불패이다. 전통적인 조종친선관계를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켜려는 조종 두 나라 인민의 념원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진행하시어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종친선의 년대기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 중국방문을 통하여 조종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서 맺어진 친선의 정과 동지적 우의를 한층 두터이하고 조종친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교지들인 김일성과 장춘시, 랴오닝을 돌아보시였으며 중국의 동북지역을 오가시며 근엄하고 지혜로운 중국인민의 사상감각과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을 깊이있게 로해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인민들이 중국공산당의 령도에 이룩한 훌륭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과 흑룡강성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은 호금도동지와 중국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환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 중국방문을 통하여 자주의 기치밑에 단결과 협조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친선관계발전의 산모범을 보여주셨으며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종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두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고무를 안겨주셨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종 두 나라 혁명선배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전통적인 조종친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공헌의 재부여에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패의 친선이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서로 긴밀히 지지협조하여왔으며 이것은 두 나라사회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커다란 전진과 승리를 안아오는 귀중한 밑천이 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중국에서는 나라의 번영을 담보해주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고 있다.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은 등승령리론과 《세계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의 기치밑에 중국특색의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제1차 5개년계획기간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중국인민의 생활이 날로 향상되고있다. 국제적인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는 상해세계박람회도 보여주는데와 같이 중국의 국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브라질인사가 축전과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브라질원방공화국 8월 25일 브라질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국외 하현 의원 에밀리아 페르난데스가 축전과 선물을 올리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8월 30일과 31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일동지께서 호금도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동지가 8월 27일 장춘에서 조선로동당 총서기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동지와 회담하였다. 회담에서 호금도동지는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다고 하였다. 「인민일보」, 《신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쫓기모임 진행

9 2 7 ㄷ 公 厂 中 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신 데 대하여 말하시었다. 그들은 이번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은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당의 축산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이며 나라의 축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상자마다에 차고넘치는 살찐 닭들과 꿩새우를 타고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닭알곡보를 보시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공장 직원들 앞을 지나고 생산을 급격히 늘리는데 대하여 대단한 기대를 표시하시였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유가치품으로 많이 생산하여 농업과 축산에 다같이 발전시키는데 대한 당의 방침

선군혁명령도는 백전백승의 가치

장장 50성상 끊임없는 초강대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조선혁명과 인민주위위업수행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에 대한 경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인디아신문 《인디안 엔드 월드 이벤트》는 항일의 혈전장에서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였고 조국해방전쟁기 고사사령부 작전대령에서 평양의 슬기로운 키우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대우에 민족의 운명과 존엄이 있고 평화도 있다는것을 누구보다 사무치게 절감하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1960년 8월 25일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심으로써 조선에서 선군혁명위업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수 있는 결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지적하시었다. 주체사상연구 기네스위원회 위원장은 치열한 반제투쟁을 동반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합법적과정을 깊이 통찰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조선혁명사에 관통되어온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시도록써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메히포단체들이 기념촬영을 발행하였다. 메히포 단결성투쟁의연구위원회는 북해전 제45호에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기념글을 실었다. 붙배전은 《빛나는 김일성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의 실정과 조선인민의 요구에 맞게 창건된 조선의 국가이며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사회주의국가이다. 주석께서는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전후의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제도를 전면적으로 수립하시고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건립시키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김일성주석으로 빛나고있는것은 그의 사상과 령도를 계승해나가는 김정일동지들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석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시고 그를 구현한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쳐시면서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반사회주의공세를 짓부셔버리시었다. 그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세계적인혁명이 일어나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려는것이 바로 김정일동지들의 확고한 결심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철칙의 의지이다. 메히포주체사상연구소는 붙배전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모시는것은 천만군민의 최대의 영광, 최대의 행복

조선로동당 평양시대표회 진행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평양시대표회 8월 28일 인민 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대표회장은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대표회 대표로 추대하게 되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었다.

대표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대표회장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지자이여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대표회에서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자!》, 《당의 전투력과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대표회에서는 시, 구역급조직과 각급 단위 당조직들, 중앙 및 시급기관 당조직들에서 선거된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집행부를 선거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자선거와 관련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추대하는 추대사를 중구역 당조직대표인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명선영동지가 하였다.

그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중대한 역사적전환기에 진행되는 이번 대표회에서 평양시안의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드림없는 혁명적선명과 의지를 다시한번 파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열리게 되는 조선로동당대표회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리징표를 아로새기고 선군의 기치높이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기를 펼쳐게 될 커다란 정치작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고결한 충성의 분출이며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시대적요구의 반영이라고 하였다.

그는 일제기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김일성민족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심화발전시켜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과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를 밝히심으로써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신것이라고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세기와 세기를 이어 무한한 전진력과 생명력을 발휘하는 자주적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진보적인 시대의 공동의 사상리론적재부로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는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위대성과 불멸의 공헌이 있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당을 강화하고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일관한 령도원칙이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 당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한 자주적선념과 특출한 조직적수완, 비범한 령도에술로 혁명과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서,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강철의 담력, 비범한 공군술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우리 조국을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가 실현된 금성철벽으로 굳건히 다지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한세기전에 총대가 약하여 망국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사회주의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조국정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사는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우리 당의 정치철학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다져오신 성스러운 내대기로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이인위천의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오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류레없이 엄혹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강대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시며 우리 인민을 세상 보란듯이 내세우시려는 철석같은 의지와 무한대한 정력으로 나라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애국헌신의 영웅사사를 수놓아 오시었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김일성민족의 강한 정신력이 남김없이 폭발되는 속에 우리의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돌파하고 주체철과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쏟아져나오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과 교육, 보건, 문화예술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났으며 인민군대의 새 문화가 급속히 파급되어 전체 인민이 선군시대 사회주의문화의 참다운 창조자, 향유자로 되고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세계에 자랑높이 떨쳐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과 불멸의 업적은 수도 평양시에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년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평양시를 더욱 훌륭히 꾸리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편이 펼쳐시고 온정어린 조치들을 거듭 취해주시었으며 시안의 수많은 경공업공장들과 대학들, 문화봉사기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어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령도와 크나큰 은총속에 김정숙평양공장, 평양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 등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중요공장, 기업소들이 현대화되고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과 전자도서관, 만수대거리 살림집, 대규모의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통안산유원지, 개신청년공원과 같은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자들이 곳곳에 밀려오시어 수도의 경제적잠력과 문화생활로대가 더한층 강화되어 평양시민들은 보다 유쾌하고 명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열렬한 민족애와 뜨거운 포용력, 한없이 넓은 도량으로 우리 민족기리의 리념밑에 나아가는 6.15통일시대를 펼쳐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어 우리 식 사회주의를 불멸의 보루로 다지시었다고 하면서 그는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희세의 정치원리로 높이

칭송하고있다고 경경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같이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력, 인민적품모그리고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 올린 업적에 있어서 결출한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온 세계가 우리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것이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의 최대의 영광이며 더없는 행운이라고 긍지높이 강조하였다.

그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확신있게 내다보고있다고 하면서 평양시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 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함에 대한 제의를 지지하는 토론들이 있었다.

평양시당위원회 당조직대표인 장인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평양시인민위원회 당조직대표인 황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평양방직공장 당조직대표인 민일홍 평양방직공장 지배인, 김일성종합대학 당조직대표인 성자립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평양시청년동맹 당조직대표인 리군철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가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과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열화같은 흠모심에 넘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함에 대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그들은 평양시는 혁명의 수도부자가 자랑되고있는 혁명의 심장이고 나라의 열굴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

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수도의 건반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시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세심히 이끌어주시었기에 오늘날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중요공장, 기업소들이 현대화되고 문화봉사기자들이 훌륭하게 꾸려져 인민생활향상에서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수도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조국의 번영번영과 인민의 행복,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체득하였다고 하면서 당의 경공업혁명방침과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대표회에서는 시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로 높이 추대함에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표회참가자들은 커다란 감격과 환희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었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들이 선거되었다.

대표회참가자들은 혁명적관판과 신심에 넘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었다.

조선로동당 평양시대표회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다함없는 흠모심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파시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국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하 노 이

월 남 사 회 주 의 공 화 국 주 석
원 밍 짜 옛 동 지

나는 월남사회주의공화국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형제적인 월남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월남인민이 지난 65년간 월남공산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기쁘게 여기고있는것을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사회주의의 공동위업의 길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99 (2010)년 9월 1일 평 양

브라쉴슬라바

슬로 벤 스 꼬 공 화 국 대 통 령
이 완 가 슈 빠 로 위 츠 각 하

나는 슬로벤스꼬공화국 헌법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슬로벤스꼬공화국사이의 전통적인 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발전되리라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99 (2010)년 9월 1일 평 양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평양시대표회가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중국인민해방군 심양군구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9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일 평양시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심양군구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장령,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심양군구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김영남동지는 1일 평양시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심양군구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장령,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심양군구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김영남동지는 1일 평양시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심양군구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대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선인민군 장령,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심양군구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고귀한 가르치심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우리 조국을 경제강국의 령마루에 하루빨리 올려세우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자면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주제95 (2006)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제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한 목재 가공공장을 찾으시었다.

세찬 바람이 눈갈기를 맡아올리며 기술을 부리는 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에는 추운 때 와야야 제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으셨이였다.

이 공장으로부터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르히 갖추어놓고 쓸모있고 맵시있는 가구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 단원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여러가지 합판들뿐 아니라 자그마한 칼도마까지 세세히 살펴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가구를 많이 인거주시려는 마음은 얼마나 강렬하시던가. 가장 주부들이나 눈길을 돌릴 칼도마에까지 그렇듯 깊이 관심하시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족하신 시선으로 가구들을 둘러보시면서 이 공장의 경험은 과학기술이냐 생산이고 생산이냐 과학기술이냐를 놓고도 증명하였다고, 맵시도 쓸모있는 갖가지 가구들을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공정인들과 종업원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에서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를 놓고도 더없이 기뻐하시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그러도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과학기술이냐 생산.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 때 강성대국건설에서 눈부신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는 철의 진리가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본사기자

통남산의 맹세가 있어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이 현실로 펼쳐진다

장엄한 희생, 거룩한 영도의 자욱

위대한 당의 영도하에 신군혁명 승리의 장엄한 년대가 펼쳐지고 있는 우리 조국방위에 뜻깊은 년론이 아로새겨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통남산의 맹세를 다지신 50돐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승으로 수놓아진 장장 수십성상을 뒤돌아보며 백두의 천출유기를 우리러 삼가 다함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있다.

통남산마루에 높이 서서서 북받쳐오르는 애국열을 용암처럼 분출시키신 그때로부터 우리 장군님께서 해쳐오신 년대들은 조신을 온 세상에 빛내어오신 영광의 년대기, 조국과 인민앞에 다진 맹세를 가장 철저히 실천해오신 공적은 년대기로 빛을 뿌린다.

장군님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이 도처에서 장쾌하게 울리셨다는 오늘 통남산맹세의 심원한 뜻과 그 거대한 의의는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영도력과 품도,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 신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만산악이 삼천리를 뒤덮은 우리 강토에서 지리적으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나직한 언덕인 통남산. 과연 언제부터 이 언덕이 조신이 알고 세계가 우러르는 산마루로 높이 솟아 빛나게 되었는가.

주제 49 (1960)년 9월 1일, 김일성총참모대학에서 열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날 아침 해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통남산마루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향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이곳에 오셨던 못 잊을 사연도 회고

하고 수령님을 잘 만들어야 한다 시인 어머니의 말씀도 되새기시는 우리 장군님의 안팎에는 승연한 빛이 흐르고있었다.

삼천리강산을 환호에 안아보시는 사산발머리에 시신을 주신채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던 장군님께서 경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태양의 나라 조국을 만대 길이 빛내어, 이것은 나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조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어서 태양의 위업을 해함으로써 이어가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화같은 사상감정은 시 『조선야 너를 빛내라』로 터져오르며 통남산마루를 정령처럼 울리었다.

조신야 너를 빛내라!
그것은 김일성주님의 무궁창창한 미래를 부르는 역사의 외성이었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바라보시며 이 한복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야말라 지원의 뜻을 새기시던 김형직선생님의 맹세,

압록강에서 조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비장한 결심을 다지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포령나루터의 맹세,

조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그 위대한 맹세들과 더불어 통남산의 맹세는 조신을 이끌고 찬란한 미래에로 가실 또 한분의 백두산인민께서 력사무대에 거연히 나서시였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그렇다. 통남산의 맹세는 지업을 안고 이끌거니와 용암과 같이 우리 장군님의 심장속에서 융출되고 다져진 철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사랑받는 인민이 있으며 후손대대의 번영이 있는 땅, 우리 장군님께 있어 이 땅은 바로 자신의 피와 살, 자기 자신이고 운명공동체가기에

그의 심장에서는 『나의 조신야!』라는 불타올라같은 웨침이 단숨에 터져나올수 있는것이다.

10대의 시절에 벌써 조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실 용대한 포부와 사명감을 안으신 우리 장군님의 절출한 위인상에 삼가 머리가 숙여지고 자신의 맹세를 빛나게 실천하여오신 그 강인담대한 배짱과 실천력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무릇 위인의 진가는 맹세와 실천이라는 시공간의 합축속에서 증명되게 된다.

총대가 약하여 오랜 세월 외세의 발굽에 시달리던 민족의 한을 속시원히 풀고 주인되고 복된 인민들의 삶의 노래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우리 조국.

총대가 강하여 세계 『유일초대국』과도 당당히 맞서는 불패의 군력을 지닌 나라, 일단 결심하면 하늘도 열고 넓고 넓고 바다도 메우는 나라, 영원한 평화의 하늘을 펼치고 오목백목과 무리익을 배일을 향하여 더욱 융잡히 비약하는 나라,

이런 국력, 이런 인민, 이런 미래를 가진 나라가 오늘의 지구상에 과연 있는가.

진정 우리 장군님은 통남산의 맹세를 지켜 아버지수령님 물려 주신 우리 조국을 세우는데 더욱 울려퍼주시었다.

누가 내세워주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천품, 자신의 실력, 자신의 헌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이끌어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욱자욱이 심장속을 새겨 두드린다.

사상도 위대하시고 철학도 뛰어나시며 군사지략과 영도예술에서, 당당에서도 이 세상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최고의 최고이신 김정일동지!

김정일동지의 영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서 커다란 혁신과 양양이 이룩되었다고 그리고 궁지에 넘쳐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그 말씀에는 력사의 진실과 합법칙성이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것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억력과 분석력, 예리한 안목과 비상한 정력으로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종합체계화하시여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강령을 선포하신 우리 장군님.

주체의 가치를 높이 추켜드신 그의 영도의 손길아래 우리 당은 주신을 명백히 세우고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사업원리 풀고 주인되고 복된 인민들의 삶의 노래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우리 조국.

총대가 강하여 세계 『유일초대국』과도 당당히 맞서는 불패의 군력을 지닌 나라, 일단 결심하면 하늘도 열고 넓고 넓고 바다도 메우는 나라, 영원한 평화의 하늘을 펼치고 오목백목과 무리익을 배일을 향하여 더욱 융잡히 비약하는 나라,

이런 국력, 이런 인민, 이런 미래를 가진 나라가 오늘의 지구상에 과연 있는가.

진정 우리 장군님은 통남산의 맹세를 지켜 아버지수령님 물려 주신 우리 조국을 세우는데 더욱 울려퍼주시었다.

누가 내세워주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천품, 자신의 실력, 자신의 헌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이끌어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욱자욱이 심장속을 새겨 두드린다.

사상도 위대하시고 철학도 뛰어나시며 군사지략과 영도예술에서, 당당에서도 이 세상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최고의 최고이신 김정일동지!

김정일동지의 영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서 커다란 혁신과 양양이 이룩되었다고 그리고 궁지에 넘쳐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그 말씀에는 력사의 진실과 합법칙성이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것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억력과 분석력, 예리한 안목과 비상한 정력으로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종합체계화하시여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강령을 선포하신 우리 장군님.

주체의 가치를 높이 추켜드신 그의 영도의 손길아래 우리 당은 주신을 명백히 세우고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사업원리 풀고 주인되고 복된 인민들의 삶의 노래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우리 조국.

총대가 강하여 세계 『유일초대국』과도 당당히 맞서는 불패의 군력을 지닌 나라, 일단 결심하면 하늘도 열고 넓고 넓고 바다도 메우는 나라, 영원한 평화의 하늘을 펼치고 오목백목과 무리익을 배일을 향하여 더욱 융잡히 비약하는 나라,

이런 국력, 이런 인민, 이런 미래를 가진 나라가 오늘의 지구상에 과연 있는가.

진정 우리 장군님은 통남산의 맹세를 지켜 아버지수령님 물려 주신 우리 조국을 세우는데 더욱 울려퍼주시었다.

누가 내세워주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천품, 자신의 실력, 자신의 헌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이끌어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욱자욱이 심장속을 새겨 두드린다.

사상도 위대하시고 철학도 뛰어나시며 군사지략과 영도예술에서, 당당에서도 이 세상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최고의 최고이신 김정일동지!

김정일동지의 영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강성변영의 년대기를 새기시던 날에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시며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희화한 건설된 이 물결에 깃들어있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인민들에게 깊이 새겨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소원을 하루 빨리 풀어드리라고 하시며 현대적인 축산기지와 양고기농장을 곳곳에 일떠세워주시는 우리 장군님이다. 나라의 강성변영에 이바지할 기념비적장조물들이 일떠설 때마다 수령님께서 계시며 해놓으시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말씀하시는 그의 밝은 미소속에 얼마나 눈물겨운 헌신의 서사가 수놓아져있는지 어이 다 알라. 아버지수령님 앞에 우리 인민들 강성대국의 대문안에 세워졌다고 몇몇이 보고드릴 그 순간이 메일, 메시지 각 자신의 심장을 뚫고있고있고 하시며 강성대국을 꿈꾸어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며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소리치며 밝아오고있는것이다.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면 잠시도 설수가 없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되새겨볼수록 자꾸나 수령님의 념원을 생각하며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어려와 우리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토지정리의 거창한 전변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 어느 날, 그 어느 토지에 가보아도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처럼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소원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던 그의 음성성이 들려오던것만 같다. 개천-태성호물결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추억하시며

통남산의 맹세가 울려 퍼진 때로부터 반세기, 그것은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창조와 변혁의 반세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남산의 맹세를 안으시고 장장 수십성상 우리 혁명을 이끌어오신 격동적인 년대들이 얼마나 거창한 변혁의 력사가 아로새겨졌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영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사회주의혁명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양양이 이룩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조국이 걸어 온 길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간고한 시련과 난관이 막아선 험난한 초행길이었다.

하지만 남들같으면 벌써 오랜만에 주저앉거나 굴복하고말았을 준엄한 력사의 광풍속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리념을 쫓아 갔다.

승리의 궁지에 넘쳐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인가.

주체사상과 인민대학습당, 서해감문과 청년영웅도로, 당창건기념탑과 청류다리를 비롯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 안변청년발전소, 태권발전소, 냉전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중소형발전소들, 사회주의당담게 홀로히 정리된 바둑판같은 규격모던 건물, 개천-태성호물결, 백마-칠산물결과 같은 자연호 특색물결들, 현대적인 축산기지와 양자갈, 기초식품공장들, 만사함을 정관시키는 백두산지주와 서흥군 법안리, 검덕지주와 사리원시 미곡리와 같은 사회주의리념촌들...

조국의 번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킨 이 경이적인 변혁은 정령 기적들의 기적이다.

기적은 저절로 오지 않았고 변혁은 결코 그 누구의 선사품이 아니었다.

어느해 가을날 한밤을 지새우시며 사업에 열중하시는 우리께서는 장군님께서 일꾼들이

이제는 뒤설것을 말씀드려야겠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무들이 나의 로고에 대하여 자주 말하면서 잠시라도 휴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고맙다고 하시면서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일찌기 수령님의 위업을 만들어 사랑하는 내 조국, 우리 조국을 세상에 빛내어달라. 변혁은 맹세를 다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 수령님의 전사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마땅하고 휴식을 하고 잠을 잘수 있겠는가. ... 조신을 온 누리에 부누시게 빛내어 빛을 송신할 열망으로 가슴 불타우며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한몸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당의 은정속에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

통일에 국투사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시며

63명 비전향장기수들의 공화국에로의 귀환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동지적의리로 실현된 역사에 있어본적 없는 사면이었다.

그때로부터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비전향장기수들의 귀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널리 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정치, 인민이 바란다면 틀무에도 쫓을 고투와 인민을 위한 일이야하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정치가 바로 우리 당의 인민정치입니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진실하고 고결한 사랑이며 믿음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의 길에서 용감히 투쟁하다 불행하게 체포되어 오래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신념을 저버리지 않은 비전향장기수들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 참으로 많은 힘을 들이셨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외세에 의해 분열된 민족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조국통일항쟁에 서슴없이 나선 통일애국투사들이며 원수들의 악착한 고문과 온갖 회유를 끝까지 이겨내며 혁명가의 지조를

굳히지 않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 청춘과 사활을 모두 바치며 고통없이 싸운 비전향장기수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시는분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다.

그이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생존 여부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때로부터 남조선에서 고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올 결심을 품으시고 그 사업을 세심히 지도해주셨다.

동지에도 뜻을 올린 조선혁명에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동지애에 기초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승리의 길을 걸고있다. 혁명전사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당과 조국을 위해 헌생을 바친 참된 혁명가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애국투사들의 전령사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데려오는것은 우리 당을 믿고 한생을 끝합없이 싸우고있는 혁명가들에 대한 마땅한 의리이며 령도자가 혁명전사들에게 베풀어야 할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인 대책과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여러 사회단체들로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 조선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고 각 방면으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한 활동을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

크나큰 믿음, 값높은 칭호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의 품에 안겨 지난 10년간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누릴수 있는 온갖 영광과 행복을 다 보아안았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 통일에 국투사, 조선혁명가들의 본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

남조선의 0.75명 독감방에서 인간배기쯤으로 죽어가던 비전향장기수들에게는 영광의 언덕에 우뚝 올라섰다.

비전향장기수들을 대할 때마다 먼저 눈길이 가는것이 그들의 앞가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메달들이다. 그것은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있어서 존엄과 영광, 삶과 행복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철부지어린것들도 빛나는 그 금메달들을 보고 비

보담의 길에서 열린 서화전시회

지난 수년간 혁명의 수도 평양은 물론 청진, 함흥, 신의주, 해산, 사리원, 개성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비전향장기수서화전시회가 진행되어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은 어떻게 하면 어머니조국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조금이라도 보답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엇을 할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던 리경한, 김은환, 양정호, 최선복, 최하중, 안영기동지들은 미숙하나 자신들이 글에서 심장의 피로 익힌 서예로 천만군민의 심장에 신념의 불을 지펴주자는데로 의견을 모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서예로 보담의

길에 걸고싶어한다는 사실을 료해하시고 이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울수 있도록 비전향장기수서화전시회를 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주제 92 (2003)년 2월에 막을 연 비전향장기수서화전시회는 해를 거듭하며 16차례 걸쳐 진행되었다.

전문교육도 받지 못하고 고문과 학대에 찢겨지고 비틀려왔던 손, 화석처럼 굳어진 손에 쓰여진 글은 비전향장기수들이 글로써 면면 전문가들보다 잘 쓰라.

하지만 비전향장기수들속에 미술가, 서예가들이 있다는데 대해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인류미술발전사에서 전무후무한 비전향장기수서화전시회는 위인의 사랑속에 마련된것

순결한 량심으로

우리가 우용각동지의 집에 들어선것은 한낮이 가까와올 무렵이었다.

반갑게 맞아주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어느 한 방에 들어선 우리의 눈길은 책상위에 놓인 보물인 인 책에 가 머물렀다.

《아직도 이 일지를 리용합니까?》

대담대신 웃음을 짓는 우용각동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한길을 걸고있는 그의 정신세계에 탄복하였다.

10년전 서울에서 남조선의 한 기자가 우용각동지에게 이 제 평양에 가면 무엇부터 하겠는가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그는 《만수대언덕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 인사를 올리는것으로부터 모든 일할 시작합니다.》라고 말하여 당과 수령을 충심으로 따르는 전사들의 신념이 어떤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조국의 품에 안긴 그날부터 그는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을

복된 삶의 향유자

지금으로부터 10년전 9월 2일은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있어서 행운의 날이고 재생의 날이었다면 그날로부터 흘러온 지난 10년간은 풍광은 나날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복을 바란다. 오늘 그 복중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비전향장기수들이다.

남조선에서 0.75명의 독감방의 고독은 가장 무서운 고문중의 고문이었다.

이러한 그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철같은 집을

이것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력사는 위인사들의 력사를 길이 간직할것이다.》《비전향장기수들이 쓴 글을 보면서 손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썼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써준 신념의 인간, 의지의 인간이 되었다는것이 가슴속에 넘쳐남니다.》《위대한 장군님만 따르던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인간이 된다는것을 오늘도 서화전시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화전시회참관자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값없는 존엄과 삶을 안겨주시고 인생의 진리를 한껏 맛보게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보람같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애쓰는 참된 혁명전사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었다.

본사기자

재생의 기쁨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건강하신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그나저나 귀에 익은 인사말이지만 해서인지 나의 생각은 깊어진다.》

그도그렇듯이 남조선에서 감옥생활을 할 때부터 나는 심장병을 앓게 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철약한 감옥생활조건과 야수적인 고문, 인가족들에 대한 탄압적시적으로 자연히 질병이 병이 생기고 그렇게 27년간을 보내면서 병은 악화되게 되었다.

출옥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막로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다보니 수술비는 물론 입원비, 진찰비, 치료비를 감당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침략자들에게 로동계급의 본태를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일꾼들과 로동계급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연립기업소이며 사업소, 분공장, 직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이 참가하는 계급교양자료 전시회를 조직진행하였다.

계급교양자료 전시회에는 1만 3천 600여점의 계급교양자료들이 전시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새로운 계급

교양자료집을 비롯하여 800여점의 계급교양자료들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많은 직장, 단위에서 계급교양자료 전시회준비위원회에서 그것도 민족하지 않고 한결한결한 계급교양자료들을 생산현장에서 리용하는 데 편리하게 그 형식과 방법을 적극 탐구하였다.

강철 2직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준비한 500여점의 계급교양자료들을 전시회에 내놓았다.

용광로직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사업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 모범을 보였다.

3호광제 작업반당세포에서 리용하고있는 30여점의 계급교양자료들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진행한 초급당위원회에서는 3차례 걸쳐 자체로 계급교양자료전시회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용광로직장에서는 전시회에 병풍식, 이등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급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 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어느날이었다.

용광로비로련합기업소가 가스화공정 건설장의 건설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기초공작작업을 벌리고있었다.

망측에 앉았같이 문힌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어내기 위한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불꽃이 튀게 삼철을 하던 건설자들이 갑자기 일손을 멈추었다. 시커먼 물체가 땅 안겨 들렸던것이다.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폭탄이다!》

보기도 흉물스러운 그 폭탄은 무게가 250kg이나 나가는 불발탄이었다.

《우리 군에서도 얼마전에 화학 폭탄이 발견되었어요!》

정경치녀의 문턱에 찬 채찍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계급교양자료들을 적극 수집하고 그것을 계급교양사업에 널리 리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과정이 계급교양자료전시회 준비과정으로 되도록 조직적 사업을 짜고쳤다.

강철 2직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진행하고 직장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계급교양자료들을 발굴수집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직장의 초급당일꾼들이 도제교양관람을 비롯한 여러 단위로 나가 직장의 실정에 맞는 수많은 계급교양

전지도 근 60년.

폭탄이 터지면 흥남땅에도 천대적인 공기를 일으켰고 인민의 보금자리가 무너졌다.

로명들의 머리에 어느덧 백발이 덮이고 전승의 그해에 여년 세대도 이제는 반세기나 다 이 땅에서 살았다. 총폭탄 소리 한번 들리지 못한 세대들이 오늘은 전쟁을 겪어 나 영웅토로 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제는 우리의 락원을 삼켜보려고 미쳐 날뛰고있다.

제2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라 팔보하고있다.

1866년 《서면》호의 침입으로 우리 나라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은 그대나 오늘에나 미제의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

그날 건설자들은 미제가 딸군 폭탄앞에서 모임을 가지고 원수들의 피행을 중립히 규탄하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뜨지 못한 수들의 머리에 불바람을 퍼붓는 심정으로 공사를 더욱 다그칠 결의를 굳게 다지었다.

불발탄이 제거된 후 건설자들은 일손을 힘차게 다그쳐 기초공작공사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었다.

세월은 흘러 미제의 불발탄은 녹이 쓸어도 계급의식은 절대로 녹이 쓸지 않아야 함을 깊이 간직하였었다.

본사기자 조향선

